목어

혹한의 교훈

인간은 본래 환경이 주는 식량과 에너지를 최대로 이용하여 살아가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좋은 날씨와 풍부한 자연의 혜택이 있는 곳에서는 환경 조건에 관한 이용밀도가 낮다. 또한 겨울밤이 긴 북구라파, 그 가운데서도 유별나게 자원이 적은 나라에서는 어떤 조건이라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가공기술이 정밀해지고 자원을 효율화시키는 과정에서 기계공업이 발달한다.

최근에는 혹한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조건으로 겨울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생활에 길들어진 어린이는 마치 온실속의 식물처럼 전혀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라게 된다. 외출이라도 할 때는 따뜻한 옷으로 몇 겹씩 감싼다. 그러나 두터운 옷보다 추위를 즐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유치원생은 일부러 반바지 차림으로 겨울을 지내는 것이 보통이다.

요즘 추위와 함께 경기 한파가 우리의 체감온도를 더 낮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첫 겨울이 따뜻해서인지 소한 이후 연속으로 이어지는 혹한이 유별나게 심하게 느껴진다.

IMF 관리 체제이후 잠깐 반짝이던 경제도 금년 초겨울 기후와 같은 양상을 보이면서 이번 경제 한파를 더욱더 피부에 느끼게 하고 있다. "춥다 춥다 하기에 더 춥게 느낀다." 경기의 추위 또한 마찬가지로 불경기이니 경기침체니 아우성이 추위의 고통을 가중한다. 일부러 내한 훈련도 하는데 이 경기한파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만한 일인 것이다.

산토끼 중 북녘에서 눈에 묻혀 지내는 것은 살아남아도 눈 녹은 남녘에 있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있다. 지금은 눈에 묻혀 있어도 건너편 산의 남녘에 싹이 트기 시작한 풀을 보고 지내는 자는 며칠만 있으면 맛있는 풀이 금방 자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주변의 눈이 녹아 싹이 트기 시작한 무렵인데도 변변히 먹을 것이 없는 북 건너편의 눈을 보는 산토끼는 봄이 멀다하여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98 조계종 사태' 법정다툼 매듭

조계종 종회 자격상실 항소심 '기각'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에도 영향
정화회의 상고땐 종헌개정 걸림돌

서울고법 민사 14부(재판장 전봉진, 주심판사 이상인, 판사 변현철)는 16일 정화개혁회의측이 낸 조계종 중앙종회 자격상실확인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정화개혁회의와 총무원 · 중앙종회 사이의 2년여 동안의 법정 다툼은 정화개혁회의의 패배로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판결은 2월 2일 1심 선고 예정인 총무원장 부존재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화회의에서 제기한 이 소송도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과 같은 이유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사면문제 다시 거론

조계종 총무원은 서울고법 민사 14부의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종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올해에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기반으로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이전과 불교문화회관 신축 불사 등 종단의 발전을 위해 가행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 정화회의측이 패소함으로써 사면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1일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2월이면 정화회의가 제기한 모든 소송이 일단락됨에 따라 종단 화합을 위한 조치도 본격화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화회의측에서 상고를 하는 등 소송을 계속한다면 종회에서의 종헌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종단을 계속 흔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면을 하겠느냐"는 것이 많은 종회의원들의 반응이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의 '화합' 의지가 워낙 강해 3월 열릴 예정인 종회에서 종헌을 개정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화회의측의 반응을 보아가며 사면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파일 이전 사면 실시는 정화회의측의 상고 여부에 달려 있다.

소송 당사자인 정영스님은 선고공판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항소를 기각한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상고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이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고법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하고 있어 실제 상고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정영스님 등은 99년 1월 '98년 11월 14일 열린 (구룡사) 원로회의에서 종회 해산을 결의했다"며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구룡사 원로회의의) 중앙종회 해산 결의는 정족수 미달에 의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종정의 중앙종회에 대한 해산 명령 역시 효이번 서울고법 민사14부도 구룡사 원로회의의 중앙종회 해산 결의에 대해 정족수 미달 등의 이유로 정화개혁회의쪽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화 개혁회의에서 제기한 종회의원 자격상실확인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됨으로써 사면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헌특위에서 종헌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고여부 불확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원로회의 의장(당시 의장 혜암 현 종정)이 소집을 거부한 가운데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의의 성립 여부 △정족수 미달 여부 등 두 가지.

당시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회의 소집과 진행을 거부했다는 것이 총무원측의 주장이며, 구룡사 원로회의가 열린 직후 혜암스님은 대각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룡사 원로회의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정족수와 관련, 종회 해산 결의 정족수인 14인데 구룡사 원로회의에는 재적 원로의원 21명 가운데 8명 참석, 5명 위임으로 13명이었다. 정화개혁회의는 위임장을 제출한 5명 외에 2명의 원로의원이 위임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 의뢰해 실시한 두 스님의 필적감정 결과 위임장의 필적과 "서로 다름"이라는 소견이 제출돼 정족수에 미달한 것으로 결론났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전통사찰 경내지 편의시설 신축가능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불교시설물 건립이 자유로와졌다.

건설교통부는 6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에서 종교용지가 아닌 경내지(임야)에서도 종교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는 지목상 종교용지가 아닌 토지에서는 건축이 불허됐다. 그러나 전통사찰의 대부분의 경내지가 임야로 돼 있어 신도들을 위한 시설을 지으려 해도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었다. 사찰의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지어도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되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일부 사찰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벌과금 납부 고지서를 받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사찰 소유의 경내지임에도 전각이나 편의시설도 짓지 못함에 따라 불교 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악법으로 작용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에서는 150㎡(45평) 내에서 시설물을 신축할 수 있다. 신도들을 위한 시설이나 전통찻집, 불교용품점 등 편의시설은 물론 산신각 명부전 등의 전각 신축도 가능하다.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지난 99년 1월 문화관광부와 99년 9월 건설교통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지목상 대지나 종교용지 이외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에 국토이용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정성운 기자

올 어떤 사업 펼치나

천태종 금강대학 기공 '교육불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올 한해 교육불사에 집중한다. 지난해 논산군 부지를 확정한 4년제 정규대학인 '금강대학'의 기공식을 3월경 갖고 건립에 본격 착수한다. 금강대학은 2003년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으로 불교학과 천태학과 등 2개 학과를 설치한다. 또 외국어 교육 등 승려재교육과 신도교육에도 역점을 두어 종단의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신도들의 수행과 공부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대구 울산 등 대도시에 있는 사찰에 6개월 정도의 단기 교양대 코스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대조사전 낙성에 이어 제2성역화 작업으로 구인사에 성보박물관을 건립한다. 이 성보박물관에는 삼국시대부터 최근세에 이르는 불교관련 유물이 다수 전시될 예정이다.

대전 삼문사, 춘천 삼운사, 창원 운흥사와 같이, 현재 짓고 있는 도심에 위치한 매머드급 사찰들의 낙성회향식도 갖는다. 도심포교사찰의 요충지가 될 이 사찰들은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불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수행과 문화공간으로 개방된다.

◇중부권 포교의 새 요충지가 될 대전 삼문사. 매머드급 사찰로 올해 완공, 시민들의 수행 · 문화공간으로 개방된다. 지난해 6월 상량식 모습.

특히 21세기 복지사회 건설에 발맞춰 종단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관 운영과 시설투자에 힘을 기울이고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이외에도 본산과 각 말사간에 인터넷망을 구축, 말사들을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 구축에 역점을 두고 사이버신행상담, 각 단체별 사이버법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천태종을 창종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출가 · 열반지인 개성 영통사지 복원 문제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한다.

이경숙 기자

종조탄생 100주년사업 '매진' 진각종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의 올해 사업은 종조인 회당대종사 탄생100주년이 되는 2002년과 연계해 회당대종사 기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며 이를 종단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다. 특히 종단 차원에서 문화재단을 설립, 이를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펼쳐 새 불교문화를 창달하는 '문화종단'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한층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것.

진각종은 '참여 화합 회향'을 큰 주제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47개 사업을 벌인다.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는데 우선 회당대종사를 내년도 문화인물로 추진해 올해부터 그 생애와 사상을 보편화하는 작업을 강화한다. 내년 5월 10일 100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 이때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관계자들을 초청한다. 회당대종사 탄생지 울릉도 금강원을 성역화하고 이곳에 선대스승 추모전을 건립하며, 위덕대에 100주년 기념관을 설립해 각종 사진 및 유품 자료를 전시한다. 회당학원 50년사를 발간하고 종조의 사상과 밀교학 세미나도 개최한다. 〈진각교전〉도 새롭게 보완해 재발간하고 〈대일경〉 〈금강정경〉 등 밀교관련 주요경전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도 추진한다.

진각종도 중에서 전문직 종사자를 파악해 (가칭)'진각리더스클럽'을 만들어 신행활동의 선도 및 자문역할을 맡긴다. 진각대학을 '대학원대학'으로 만들어 인재를 양성하고, 북한의 장안사, 경주의 사천왕사 등 밀교유적지 복원에 착수하며 내년 5월에는 밀교의식 시현법회도 가져 밀교의 대중화를 유도한다.

대북 교류와 관련해서는 통일대비 포교기금 3년차 2억원을 적립하고 종단협 방북과 함께 올 7월에는 종단 대표단의 세번째 방북을 성사시킨다. 진각복지재단의 북한지부가 설립되도록 NGO차원에서 추진한다. 지난해 조불련과 합의한 컴퓨터 직업훈련소 개소 및 컴퓨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며 남북불교교류 관련 세미나도 개최한다.

이와함께 종합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金河堂 光德 大禪師 涅槃 2주기 追慕法會 및 特別講演會 奉行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새로운 문명의 세기,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혼돈과 불안으로 잔뜩 왜소해진 인류에게 스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설파하셨습니다. 선교(禪敎)에 대한 깊고 넓은 지견과 실천적 수행을 겸비하시고, 뜨거운 신앙심과 서원으로 다진 수행공동체인 '불광회'를 창립하여 대중포교의 기틀을 마련하시고, 순수불교운동지 월간 불광을 발행하시어 문서포교의 새 장을 여신 선각자로, 대중불교의 횃불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으며, 그 빛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어 큰 빛을 나투시고 세간의 밝은 등불로 헌신해오신 스님께서 열반하신 지 어느덧 2주기가 되어옵니다. 열반에 드시는 순간까지도 전법으로 깨달음을 이루라는 간곡한 부촉을 잊지 않으셨던 스님의 부촉을 받자와 저희 대중들은 더욱 일로매진해갈 것을 거듭 서원드리오며, 스님의 뜻과 행적을 기리는 추모법회와 추모강연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광사 · 불광법회 회주 **지 정** 회장 **현선 김상규** 합장

제 1부/ 추모법회 법어/보성 큰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일 시: 2001년 2월 4일 (음력 1월 12일) 일요일 오전 10시

제 2부/ 특별 강연회 불광운동의 사상과 실천 -김영태 교수 (동국대 명예교수)
일 시: 2001년 2월 4일 (음력 1월 12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장 소 : 불광사 보광당
문의전화 : 02-413-6060~2 | http://www.bulkwang.org | E-mail:webmaster@bulkwang.org **불광사 · 불광법회**

금하당 광덕(金河堂 光德) 대선사 연표

1927년 경기 화성 출생 | 1950년 무산 범어사 입산 | 1951년 무산 범어사 청풍담 정진
1955년 무산 범어사 통산 선사를 은사로 득도
1956년 비구계 수계, 대각회 창립, 초대회장 | 1958년 조계종 중앙감찰위원 | 1962년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1963년 대학생불교연합회 초대 지도법사 | 1965년~1967년 통은사 주지, 학교법인 대동학원 이사
1966년 학교법인 원효학원 이사 | 1969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재단법인 대각회 감사
1971년 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무의장 청담 스님 열반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당시 조계종 총무부장)
1973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 | 1974년~1999년 재단법인 대각회 이사장, 순수불교 운동지 월간 『불광』 발행인
1975년~1999년 불광법회 창립, 법주 | 1977년~1995년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 역임
1979년~1999년 불광출판부 개설, 발행인 | 1990년~1996년 선암 대본산 범어사 금강계단 보살계 전계대화상
1992년~1999년 도서출판 한강수 개설, 발행인 | 1993년~1999년 재단법인 보덕학회 이사 1999년 2월 27일 (음력 1월 12일) 열반

역지서 - 생의 의문에서 그 해결까지, 삶의 빛을 찾아, 빛의 목소리, 반야심경 강의, 보현행원품 강의, 행복의 법칙, 메아리 없는 골짜기, 만법과 짝하지 않는 자, 선관색진, 육조단경, 부모은중경, 반야경, 지장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천수관음경, 법화요전 등 다수

찬불가 - 창작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 부모은중송, 미하빈야의 노래, 연꽃 피는 날, 천만한 이 아침, 초파일 송가, 빛으로 돌아오소서, 님의 숨결, 임은 태양 위 태양, 혼자 있을 때, 보디스바하, 우리는 불국토의 주인이로다, 번영하는 사람의 기도 등 다수 작시